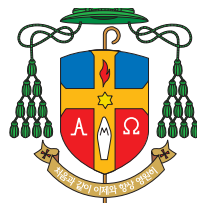


2014년 교구장 사목교서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교구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풍성히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난 2012년 제2차 교구 시노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또 '신앙의 해'를 지내면서 시노드의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교구 시노드의 참된 결실은 성령의 인도 아래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복음화'라는 큰 목표 아래 시노드에서 논의되었던 각 주제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끌어 들이는 일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은총을 보다 깊이 받아들이고 한층 견고한 확신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쁘게 신앙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느님과의 친교, 형제자매들과의 친교가 깊어지는 가운데 참된 복음 선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교의 심화가 우리의 삶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거룩한 전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성체 성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음식의 형상으로까지 스스로를 낮추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한 몸을 이룹니다. 전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그 사랑에 기쁘게 응답하는 잔치이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듯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10항)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친교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고, 그 초대를 전달할 일꾼으로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본당이며, 따라서 본당 공동체는 전례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인 동시에 선교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2차 교구 시노드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증거는 무엇보다 먼저 신자들 간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섬김과 친교의 삶으로 드러나야"(대구대교구 제2차 시노드 교서 『새 시대, 새 복음화』 27항) 하며, 거룩한 전례 안에서 탁월하게 드러나는 이 친교가 교우들의 가정



과 직장과 지역으로 확장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먼저 전례를 활성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례의 집전자인 사제들은 전례에서 본래의 아름다움과 거룩한 품위가 드러나도록 회중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만큼, 교우들이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칠 뿐 아니라 전례의 준비와 거행의 전반에 걸쳐 수도자들과 교우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특히 전례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우들과 공동체의 삶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강론을 성실히 준비하고, 성체를 합당한 공경으로 배령하도록 교우들을 지도하며, 미사와 성사 안에서 교우들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주님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은 자신이 맡은 직분의 영예를 깨닫고 보다 적극적으로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신앙의 활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성사의 은총으로 양육된 신앙의 활력은 곧 복음 선포로 이어집니다. 전례 가운데서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교구 시노드가 천명한 바와 같이 사제들은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해 축성된 선교사”(대구대교구 제2차 시노드 교서 『새 시대, 새 복음화』 29항)임을 명심하여, 교우들의 선교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할 뿐 아니라 앞장서서 교우들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예비자교리의 전 과정을 면밀히 지도 감독하고, 새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공동체에 긴밀히 결합되도록 배려하며, 냉담자들에게 지속적인 권면이 이루어지도록 보살필 책임 또한 사제들에게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선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임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가정이나 직장 같은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실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하느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넣어주신 보물(2코린 4,7 참조)입니다. 이 보물을 들어 높여 기리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지극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 땅의 순교자들과 신앙 선조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용맹히 신앙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이 시대에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013년 12월 1일 대림 첫 주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타대오) 대주교

† 조 환 길 타대오



깨어 있어라!

류주화 시몬 신부 | 4대리구 사회복지담당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생일 적에 부모님은 가끔 여행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동생을 집에 두고 말입니다. “주 화야! 여동생 데리고 집 잘보고 있어라. 두 밤 자고 오게.” 그렇게 여행을 가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장 믿음직스럽고 충실한 모습으로 “예, 걱정하지 마세요.”하고 대답을 했었지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멀리 가신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 믿음직스러웠던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제왕적인 오빠만 남게 됩니다.

“밥 차려와라. 청소해라. 오빠는 놀다가 올 테니 설거지 해 놔라...” 그렇게 이틀 동안 동생을 괴롭히고 부러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는 동생에게 과자를 사주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부모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은 부모님이 이틀 계시다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하루 만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동생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동생과 화해도 못했는데, 부모님이 집에 오신 겁니다. 눈치 없는 여동생은 아버지께 저의 모든 악행을 고해바쳤고, 그 날 저는 안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항상 깨어있었어야 했는데...’

대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시기이지요. 이런 첫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일상을 흔들어 깨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미건조했던 마음들, 하느님 나라를 꿈꾸지 못한 많은 생각들, 턱없이 부족했던 기도생활들, 신앙인으로서 좋지 못한 표양을 보였던 많은 말과 행동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굳이 외면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일상들, 사랑도 감동도 눈물도 사라져버린 우리의 마음들, 부모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고 계속 동생을 괴롭히다 아버지께 맞은 한 아이처럼 그렇게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깨워야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마를 때로 말라 곳곳에 갈라져있는 땅처럼 그렇게 무미건조했던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과 감동의 물을 부어야 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시지요. 옆에 자고 있는 사람도 함께 깨우시지요.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은총과 구원을 전하러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오십니다. **골로**

†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이사 21-5

제2독서 로마 13:11-14

복음 마태 24:37-44

화답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나야, 나!

박상용 요한 신부 | 교구 사목국 차장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힘겹거나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소위 “뺨”입니다. 누군가가 해결사의 역할을 해 주거나 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방향을 제시해 주면 막막하기만 해서 보이지 않던 출구가 보이게 됩니다. 외국생활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볼리비아라는 낯선 나라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골 공소에 있는 자매님 한 분을 모시고 나와서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골 가난한 동네에 사는 초라한 촌부(村婦)였습니다. 그 자매님을 차에 태워서 함께 공소에 다니던 스페인 태생 할머니 수녀님의 소개로 알고 있던 유일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느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기꺼이 모셔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엔 입원료가 우리 돈으로 하루에 15만 원이나 하는 부자들만 올 수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니나다를까 잘 차려입은 뽀얀 사람들이 진료실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들을 본 그 자매님은 당연히 주눅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가 봅니다. 우리도 진료실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앞선 환자를 배웅하느라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셨

고 늘어 선 줄 제일 뒤에 서 있는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단히 미안하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신 뒤 제일 뒤에 있던 공짜 환자인 우리를 우선 진료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란 듯이 어깨를 우쭐대며 진료실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중 하나의 예입니다. 그 때도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겁 없이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일하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서 능력이나 힘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물도 설고 말도 선 외국에서 맘껏 사제로서 또 선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확실한 “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살았던 볼리비아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크고 많다는 것을 온 몸으로 특별히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조건 달려갈 뿐입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창세 15,1) **썬데이**

준비하지 않으면!

강한 기병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 기병 덕분에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잘 달리며 또 지치지 않는 영리하고 잘 훈련된 군마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군마들이 없었다면 이 왕은 절대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윽고 주변의 나라를 모두 정복했고, 이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많은 군마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지요.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이 군마들은 사료도 많이 들고 관리하는 것도 힘드니, 백성들이 일할 때 쓰도록 빌려주면 어떨까요?”

생각해보니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빌려 주면 백성들은 좋아할 테고, 사료 값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웃나라에서는 그 전의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리고 어느 정도의 힘이 모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에 왕은 백성들에게 빌려주었던 말들을 다시 돌려받아 전투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길 것이라 자신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격하라는 북소리를 듣고도 그의 용감한 군마들은 한 자리를 빙빙 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방앗간의 맷돌만 돌리다가 싸우는 법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쟁이 없다고 군마를 훈련시키지 않았으며 사료 값이 아깝다고, 백성에게 인심을 쓰겠다고 군마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에는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하지도 않다가 급할 때만 기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입니다. 주님안에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백운**

금주의 성인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12월 7일)

서방교회의 4대 교부 가운데 한 분이신 암브로시오 성인께서는 밀라노의 행정관으로 재직하시다가 백성들의 추대로 세례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주교로 서품되셨다. 성인께서는 탁월한 설교가로도 명성이 높으셨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성인의 강론에 감회되어 개종하시고 세례를 받으셨다. 또한 성인께서는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룬 최초의 교부로 교회가 고유한 영역에서는 최고권을 가졌으며 도덕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인식시키셨다. 성인께서는 처음으로 시편을 대중적인 찬미의 기도로 활용토록 가르치셨으며 〈신비에 대해서〉, 〈성직자들의 직무론〉 등을 비롯한 많은 저서들을 남기셨다.



■ '신앙의 해' 폐막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1월 24일(일)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에서 신앙의 해(2012.10.11 ~ 2013.11.24) 폐막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 영성사진콘테스트 최종결선 시상식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1월 20일(수) 오전 10시 40분 교구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영성사진콘테스트 최종결선 당선작 6점(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에 대해 시상하셨습니다.

신앙다이어리로 새해 설게 끝!

전례와 말씀 안에서 매일을 주님께, 교구 2014년도 **신앙다이어리** 출시

주요 구성 : 2014년 교구장 사목교서와 교구소개 / 교구 내 성지안내 / 2014년 교회 전례력 / 전례시기 해설 / 오늘의 말씀 사탕 / 주일의 말씀 / 주요기도문 / 미사통상문 / 교리상식 / 매일 성경 읽기 / 성인 축일표 / 교구 내 전화번호 안내

구입처 : 천주교 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6~9

판매가 : 10,000원 송금계좌 _ 대구은행 505-10-147612-5

예금주 _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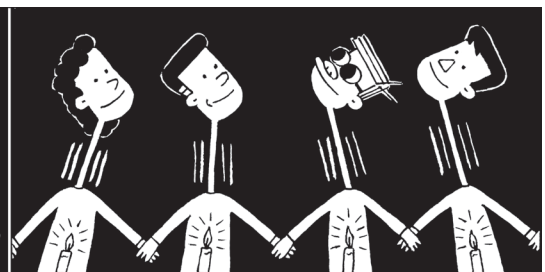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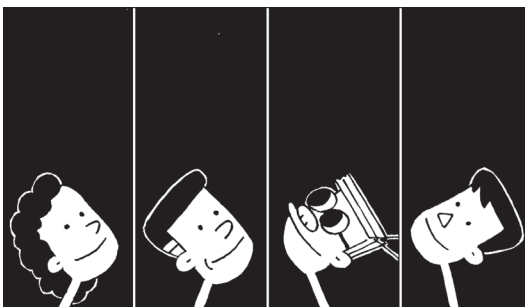
연중 제32주일(11월 10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일곱>입니다.

당첨자 : 최안리(아녜스, 서재), 정성진(알도, 연일), 석경도(알로이시오, 선남),

백순녀(말지나, 만춘), 김산림(엠마, 영천)

간절한 마음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우리 함께 구세주 오심을 기다립시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2월 2일(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대성당
밀알빛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2월 2일(월) 11:00 계산성당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례미사	12월 2일(월) 22:00 한티순례자의집
포항지역 교정사무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일(월) 11:00 죽도성당	포항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2월 4일(수) 19:00 장량성당
12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12월 2일(월) 11:30 한국SOS어린이마을 성당	첫 토요 신심 미사	12월 7일(토) 11:00 성모상
경주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2월 2일(월) 19:00성동성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2.8(일) 14:00

장소: 부산 본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12.6(금) 18:00~8(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족 피정

초등: 1.11(토)~12(일)

중·고등: 1.18(토)~19(일)

장소: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대전)

교육비: 4만 1천 원 / 간식포함

문의: (042)584-0654(선착순 마감)

교육 | 모집

성령세미나 / 송년철야기도회

612차 2박 3일(청년): 1.3(금)~5(일)

613차 2박 3일(일반): 1.10(금)~12(일)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송년철야기도회: 12.27(금) 21:00

2014년 해외선교사를 위한 교육

20차: 1.20(월)~2.21(금)

대상: 해외파견명령을 받은 선교사

문의: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02)953-0613

PBC 평화방송 겨울 영어 캠프

필리핀: 12.26~1.23(4주 390만 원)

미국(광): 1.2~1.29(4주 570만 원)

대상: 초·중·고생, www.pbc.co.kr

문의: 필리핀 (070)7119-6898,

미국(광) (070)7504-4776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생 모집

장학금 지원, 학술 연구비 지원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참조

마감: 12.15(일)까지

문의: (02)460-7533

제43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4~2.23(3, 5, 7주)

정규학교 아일랜드학생들과 수업

대·일반: 1.6~2.16(6, 10주, 장기)

주관: 마신부님(Rev.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평창 성필립보 생태마을 아토피힐링캠프

기간: 1.6(월)~10(금), 4박 5일

13(월)~17(금) / 20(월)~24(금), 3회

대상: 아토피환자 1세~20세

환자 1인 40만 원 보호자 추가비용

문의: (033)333-8066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성독) 입문피정

기간: 1.22(수)~26(일), 4박 5일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 피정의 집

피정비: 27만 원 (1인 1실)

지도: 허성준 가브리엘 신부(OSB)

문의: (054)971-0722 / (010)4127-5758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기간: 12.31(화)~1.28(화)

대상: 초4~고3(선착순: 50명)

문의: 656-6655(ARS 4)

대학생 해외봉사·어학연수 모집 중

문의: 593-1273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유방 감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

ORANGE MOTORS 오렌지모터스
동대구IC정비공장

판금/도장
일반/보험/수리전문

각종오일 및 소모품 (교우님 특별우대)
대표 이상훈(하상바로) **958-0009**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미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리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일 :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 오전 9시~밤 9시 까지

내선번호 260-7777 (내선번호 260-7575)
*서부정류장, 관문시정령(구,달성정류장지리)

예수님과 바오로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 터키) - 14일

출발일 : 2014년 1월 11일
순례경비 4,500,000원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 (주)성지여행 포털레(유스티노)

우리 아이 첫보약은 원방한의원에서
원 방 한 의 원

前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현(요셉)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필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행사 | 모임

제10차 성경 통독 피정

기간: 12.21(토) 13:30~22(일) 16: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5만 원
문의: 사목국 성서사도직, 250-3082
<http://cafe.daum.net/biap>
대구508-10-448845-1 성서사도직

사회교리 주간 행사

12.9(월) 19:00 이희아 연주회
12.10(화) 19:30 신앙을 새롭게
12.11(수) 19:30 만들레 국수집 이야기
장소: 평리성당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10)4530-7367

성 음악 발표회

일시: 12.2(월) 19:30, 아양아트센터
문의: 255-4847

교육 | 모임

가톨릭 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12.18(수) 13:30~16: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5천 원
주제: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한 대화법
강사: 이수남 요한(상담심리 전문가)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12.14(토) 10:30~12:3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신흥종교와 가톨릭신앙 / 5천 원

강사: 노길명(세례자요한) 교수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12.1(일) 15:00
문의: 255-4847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 주말

MR 13차: 12.28(토)~29(일)
316차: 1.3(금)~5(일)
317차: 1.17(금)~19(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대구ME, 983-0521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개강: 1.6(월)
오전반 10:00~12:00
저녁반 19:00~21: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문의: 253-1313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

창작사진: 12.9(월) 10:00
오카리나성가: 12.9(월) 12:30
하모니카성가: 12.11(수) 13:00
건강태극권: 12.13(금) 13:00
문의 및 신청: 254-6115

가톨릭 한중(韓中)친선협회 회원모집

대상: 중국어 초급이상, 50세 이하
내용: 중국어(성경반, 프리토킹반)
중국(문화친선반, 성지순례반 등)
회비: 한달 5천 원(모두 합한금액)
문의: (011)808-8018

2014 맨발가르멜재속회 회원 모집

첫째주 일요일: (011)530-7763
첫째주 월요일: (011)9321-3497
넷째주 일요일: (010)6263-0947
넷째주 월요일: (010)4733-1715

대구가톨릭문화관 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초코아트, 톨페인팅,
백세건강강좌(무료)
문의: 476-6211

채용 | 안내

중등학교 교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

원서 접수: 12.4(수)~6(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선목: <http://www.dgsunmok.or.kr>
해은: <http://www.daegu-archdiocese.or.kr>
문의: 선목 660-5161 / 해은 660-5164

월명성모의 집(김천) 직원 채용

모집: 간호사, 조무사, 요양보호사
채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문의: (054)435-5579
기타: 간호사, 조무사는 주간전담
혹은 야간전담 / 기숙사 가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3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백내장수술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의학박사
현, 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중원**(소시모)
대구연세안과
☎ 053.626-8881-5

미소나라 misonari **출장뷔페**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에이 통증의학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인공신장실
신장 전문 수 임 **내과**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백두정형외과
의학박사/원장 배 상 근
(베드로)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배 상 영
(미카엘라)
관절경 수술전문 (어깨 무릎 발목)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053)425-5919
(구) 백두정 정형외과

한투어 HANTOUR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성모발현지(루르드, 파티마, 과달루페)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외 다수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서문한의원
어혈치료(금진옥액 요법)
• 중풍예방 • 편두통
• 무릎, 어깨관절통 • 화병
• 간헐적 및 장천소
원장 김 형 철(루카)
월~금 야간진료(저녁9시까지)
☎ 053)572-8721~2

시브마린리조트
170명 연회장(대, 중, 소 연회장 완비)
객실 68개 취사, 복층구조(초, 중, 고 수련회 환영)
해수사우나, 노래방, 스크린골프,
한, 일식당, 커피숍, 편의점 완비
www.submarineresort.co.kr
예약문의 054)293-1200 나종기(요아킴)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549-1